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4일 화요일 음 6월 22일 (14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7℃, 낮 최고기온은 32-34℃로 예상된다. 중산간 이상 지역은 오후에 구름이 많을 예정이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10%
10%	성 산	10%
10%	고 산	10%
10%	서귀포	10%

해돋이 05:48	해질 19:32	달뜨기 22:57	달지기 11:03
물때 만조 01:43	간조 08:33	20:42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7/33℃

모레 맑음 26/32

월드뉴스

‘최저 수준’ 엔화 가치에 미일 공동 대응

美 중시 우려에 엔화 매수

미국·일본 당국이 지난달 31일 엔화 약세에 대응해 엔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것은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과도한 약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양국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달러당 엔 환율은 164엔에 육박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며 “최근 나타난 엔화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를 공식 확인했고, 일본은 필요시 추가 공동 개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일 공동 외환시장 개입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15년 만이며 엔화 공동 매수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미국은 엔화 약세로 일본의 인플레이션·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미국 국채와 증시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개입 이후 엔화 가치는 급등해 달러당 155엔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달러당 156엔 후반대로 올라섰다. 시장에서는 추가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화, 연합뉴스

데스크칼럼

정치인의 약속, 이제는 믿기 어렵다

주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을 보며 먼저 든 생각은 ‘총리 재임 시절에는 무엇을 했는가’였다. 국정을 총괄했던 국무총리 한 사람이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항공좌석 부족 문제를 국가 차원의 의제로 끌어올려 관계부처와 항공사 간 협의를 촉진하거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와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다시 같은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만큼, 총리 재임 시절 어떤 노력을 했고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 4·3 역사 왜곡 처벌 입법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와 법률 명확성 논란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 개정을 약속했다면 단순한 ‘추진’ 선언을 넘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고, 여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입법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송영길 후보의 행보 역시 다르지 않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4·3 왜곡 대응, 제2공항 갈등 해결,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제2공항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는 ‘제주-서울 KTX 해저 터널’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민 합의와 국가적 공감대가 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해저 터널 구상은 2007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검토된 이후 여러 차례 국가계획 반영이 논의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2012년 타당성 분석에서도 비용편익비(B/C)가 기준치인 1.0에 못 미치는 0.84에 그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국가균형발전 사업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막대한 재원 확보라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서는 도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제주를 찾아 비슷한 공약을 내놓는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제 공약을 예전처럼 믿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이 우선순위에 따라 밀리거나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려운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정치인의 가치는 결국 실천으로 증명된다.

열린마당

가뭄 극복, 물 한 방울도 함께 나누는 마음을

폭염 속 건설노동자를 지키는 ‘기후보험’

수이며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공공자원이다. 물을 낭비하는 행동은 이웃 농가의 농작물과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업용수를 사용할 때는 물탱크가 가득 차기 전에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급받아야 한다. 잠시만 관심을 기울여도 물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 물은 다른 농가의 농작물을 살리는 귀중한 용수가 될 수 있다. 가뭄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행정과 소방의 헌신,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물 사용이 함께할 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가뭄은 자연재해이지만 물을 아끼고 함께 나누는 일은 우리의 선택이다. 물 한 방울을 아끼는 실천이 이웃 농가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이 될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과 소방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농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성민철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실

보도자료들을 살펴보다 눈에 띄는 자료가 하나 있었다. 장마가 끝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살인적인 무더위, 그 이야기를 다룬 자료였다. 살인적인 무더위 아래에서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있다. 하루 벌이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은 곧 그날의 생계가 끊긴다는 뜻이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이들의 일상을 흔드는 현실이 되었다. 제주지역 폭염특보 발령 일수는 최근 2년 새 두 배 넘게 늘었고, 지

난해 온열질환자도 100명을 넘어섰다. 통계 뒤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의 얼굴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고민 끝에 제주도가 선보이는 것이 ‘기후보험’이다. 폭염경보로 작업이 멈추면 복잡한 피해 증빙 없이 소득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전국 최초의 지수형 보험이다. 대상은 공공 발주 1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일용직 노동자로,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과 현장 작업 중지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앞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좋은 정책도 알려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제도가 현장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도록 꾸준히 알리고 살피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이번 시도가 가장 약한 고리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바란다.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한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점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법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감귤묘목·포드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마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나로 ● 제라몬

※ 포드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증서와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례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 (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